

■ 여야, 대통령 언급 '외부선장론' 파장

정치권 "대통령 대선 개입하나" 경계

여당 대선 후보 영입가능성을 시사한 노무현 대통령의 '외부선장론'이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계파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대선에 개입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파장 차단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당청 회동 결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당 "계파간 해석 제각각"

◇여권 내 의견 분분=김근태 의장과 천정배 의원 등 열린우리당 내 차기 대선 예비주자들의 '면전'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관측과 해석이 나뉘면서 '노심'(盧心) 읽기가 한창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여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강한 울타리론'을 설화한 것이라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울타리를 튼튼히 하면서 '강한 함대'를 만들어야 외부인사들이 우리당에 노크할 수 있고, 외부인사가 들어오더라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중심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재의 당 사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다. 때문에 외부인사 영입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우윤근 의원은 "경쟁해서 싸워 이겨라" 이런 취지가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이 누구를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칭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당내 대권주자들이 우리당에 노크할 수 있고, 외부인사가 들어오더라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해석했다.

고건·정운찬·박원순 거론

◇외부 인사는 누구? =외부인사 영입론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그 대상에 대한 예측도 난무한 상황이다. 여권에서 주시하고 있는 외부 인사로는 고건 전 총리, 정운찬 서 울대 전총장, 박원순 변호사 등이 앞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고 전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야당의 이명박, 박근혜 후보와 지지를 접점을 펼치고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다. 당내 일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 전 총리를 영입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 "명백한 오보다"

◇청와대 확대 해석 차단=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선후보 외부영입론 시사' 등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오보다"며 "당 내부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당을 잘 지켜나가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울러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자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겠지만, 이런 해석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 '안보논쟁'으로 불붙어

野 "국가위기"... 윤광복 해임 검토 與 "한미 동맹 약화론 활용 개탄"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통제권을 한국군이 2012년께부터 단독 행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안보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시 작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국가안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연일 대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특히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안보문제를 본격 쟁점화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윤광웅 국방장관과 공개적으로 대립해왔던 전직 국방장관들은 윤 장관이 진화에 나서면 서 7일 오전 예정됐던 긴급 회동과 성명서 발표를 연기했으나 재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일 연합뉴스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안보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국회 국방위와 통일위 공동으로 국방장관 정책정보회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 장관에 대한 해임안 제출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안보문제조차 좌파논쟁이나 한미동맹 약화론 등 일파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외교·안보문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과거 어느 야당도 하지 않았던 지나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시 작통제권 환수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국방장관과 전직 국방장관들 사이에 벌어져 '기 싸움'은 7일 역대 장관들의 회동 연기로 일단 진세로 돌아섰다. 당초 역대 장관들은 7일 오전 11시 긴급 회동을 갖고 윤 장관의 사과와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우려 등을 재차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5~6일 김성은(15대), 이상훈(27대) 등 역대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일부 발언이 선배 원로들을 자극하거나 폄하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윤 장관과 통화한 전직 국방장관은 역대 장관들을 설득해 7일 회동을 일단 9일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미연합사 분리 될 듯

각각 독자사령부로

정부가 추진중인 전시 작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관련,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독자사령부 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한미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주한미군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바벨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달 언급한 한미 독자사령부(independent command·일명 총괄지휘사령부) 창설안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벨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국회안보포럼 주최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작통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역할로 전환하는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2개 사령부, 즉 한미가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독자사령부 창설안은 한국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합참이, 미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맡는 형식으로 한미 간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두 사령부는 예하부대에 대한 작통제권을 각각 부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을 총괄지휘하는 사령부가 창설되면 주한미군사령부의 위상과 지위가 변화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예정된 1만2천500명의 병력 감축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 '최악 범조비리' 김홍수사건 전말

검찰이 7일 재판급 예우를 받았던 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서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전격 청구함에 따라 범조비리 김홍수씨 사건은 사상 최악의 범조비리로 남게 됐다.

◇1년 만에 꼬리 잡힌 브로커=이번 비리는 브로커 김씨가 다른 혐의로 처벌 받은 뒤 1년 가량 지나서야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브로커 김씨는 작년 7월 하이닉스 주식 불법 거래에 연루된 금융 브로커 박모씨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2억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올 해 5월 초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주식 불법 매매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김씨의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말 보좌관 출신

'하이닉스주식 불법거래' 1년뒤 꼬리 잡혀 전 고법판사 부인 계좌추적때 검·법 갈등

김모(40,구속)씨가 김홍수씨에게서 산업은행 보유의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1천만 주를 편법 인수할 수 있게 협매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것이 범조 비리 수사의 싹탄이 됐다. 검찰이 김씨 자택에서 발견한 김씨의 다이어리에는 김씨가 언제 누구를 만나 얼마를 건넸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당시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전직 부장검사, 현직 검사와 경찰 등 범조인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을 접대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현직 검사는 지난 6월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직 고법 부

장판사와 전직 부장검사, 전직 경찰서장 등이 잇따라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사상 최초로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다.

◇검찰·법원 갈등 속 검찰 '강공' =유례없는 현직 고위 법관에 대한 비리 수사로 인해 수사 기간 내내 법원과 검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수사 대상인 고위 법관은 검찰을 직접 찾아와 자신이 수사를 받는 데 항의하는가 하면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불붙 터져서 쏟아져



나왔다. 특히 검찰이 청구한 고법 부장판사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 내에선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난이 나왔고 법원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포괄 영장을 신청하는 등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반격이 나오기도 했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비가 새서 걱정하십니까? 여름에 더워서 짜증납니까? 겨울에 춥습니까? 외관상 흉하십니까?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민사공으로 건물 수명을 늘기만 영구 방수 방열 50% 절감효과. (주)태양주택개발 TEL(062) 262-0606 262-0450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일한 교육, 최상의 시설. 유료과정 교육내용 개강: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1차 8월 10일: 오전/오후/야간, 2차 8월 22일: 오전/오후/야간.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학개론, 1차 중실반, 7월22일 주말반. 주택관리사, 회계, 실무, 법규, 8월 5일 주말반.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8월개강.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8월개강.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담후결정. http://www.eduviet.net

곡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전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평생교육사 원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습목표의 학습목표를 제시하면 우선 다양하고 심도한 협력리플링과 그것을 실재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규모를 개인 여건이 상주하여 하고, 비로 우위의 최고 교사들이 선공과목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교육학/학내영 선생, 국어/회병해 교수, 수학/임대성 교수,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생물/김지숙 교수,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8월 7일.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편위 대비).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hanbitgosi.co.kr '10월 1일 서울시' '9월 23일 9급사무직' '9월24일 선편위' 시험대비 7급 문제풀이반/이론반 9월 1일 개강.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234-0234